

#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자동차 “난항”

## 본격적 대중화 어려워 ... 연료비 절감 가능하나 폐식용유 확보 곤란

미국에서 고유가로 경유와 폐식용유를 연료로 병용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번거로움 등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CNN Money가 7월24일 보도했다.

CNN Money는 폐식용유 병용 트럭들을 보유한 렌터카기업 대표의 말을 인용해 디젤 가격이 꺾던당 기록적인 3달러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폐식용유를 사용하면 연료비를 절반 가량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최대 이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럭은 폐식용유 병용으로 개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당 3500달러에 달하고 안정적인 폐식용유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이 단점이라고 덧붙였다.

디젤 승용차는 폐식용유 병용 키트를 장착하는 비용이 800달러로 훨씬 싸지만 식당 등에서 폐식용유를 가져다 스스로 걸러야 하는 등의 절차가 번거로운 점이 일반 운전자들로 하여금 바이오디젤 자동차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CNN Money는 지적했다.

또 미국에서 연간 약 1억갤런의 폐식용유가 식당에서 배출되지만 미국인이 소비하는 휘발유 1400억갤런의 0.07%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나마도 현재 미국인이 운행하고 있는 모든 휘발유 차량을 디젤용으로 바꿔야한다는 조건이 전제돼 있다고 CNN Money는 덧붙였다.

환경단체도 폐식용유 재활용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CNN Money에 “폐식용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대기도 정화시킨다는 구상이 아직은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디젤값이 3달러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차츰 운전자들이 폐식용유 병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관계자들은 연방 당국이 폐식용유가 자동차 연료로 전용되는 과정을 까다롭게 규제하는 것도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26>